훈훈한 한가위…온정 손길 잇따라

KT CS광주사업단 114센터 장애인과 송편빚기

KT CS 광주사업단 114 안내센터 임직원 봉사단은 최근 남구 월산동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15명과 함께 송편을 빚었다. 〈114안내센터 임직원 봉사단 제공〉

산단공, 저소득 보훈가정 사랑나눔 위문품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방재성)는 최근 시민종합사회복지관과 광주지방보훈청 등을 방문, 독거노인과 저소득 보훈가정에 써달라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전남한돈협회, 추석 돼지고기 나눔행사

전남지역 돼지 사육농 690여 명으로 구성된 전남한돈협회(회장 오재곤)는 최근 추석을 맞아 돼지고기 6800kg(2kg들이 3400박스, 4500만원 상당)을 전남도에 기부했다. 〈전남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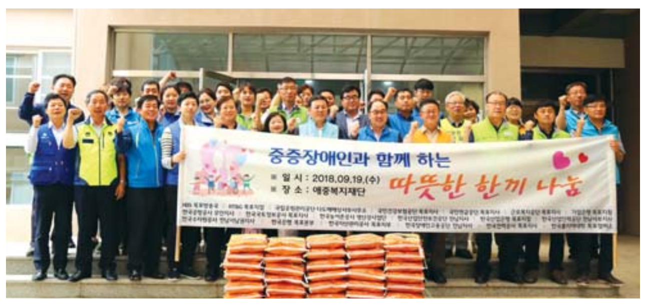
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원호금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이재준) 직원들은 20일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이두관)를 방문해 추석맞이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랑의 원호금품(35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중기 광주전남본부 복지시설 600만원 후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회장 임경준)는 20일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지역 7개 사회복지시설·기관에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목포 공우회 봉사단 장애인 식사 대접



목포지역 19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협의회 '공우회'(회장 최낙균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봉사단 60명이 최근 무안 애중복지재단에서 장애인에 식사 대접을 하고 쌀을 기증했다. 〈목포 공우회 제공〉

농협은행 전남본부 목포광명원에 생활용품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유해근)는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영암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목포광명원을 방문해 생활용품 등을 후원하는 '사랑나눔 기부행사'를 가졌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광주은행, 조손가정에 명절 선물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9일 오전 지역의 조손 및 한부모 가정을 방문해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가족 전통과 역사 지키는 것도 교육"

할아버지가 지은 한시 번역 문집 낸 정우성 전 광주교육청 교육국장

영광서 훈장 지낸 조부의 詩 250편 번역해 책으로 묶어 "조상들의 일상·생각 속에서 미래 생각하는 계기 됐으면"

"가족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나가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는 추석 명절에 손주들에게 우리 조상이 걸어온 길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려 합니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을 지낸 정우성(68)씨가 최근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긴 한시 250편을 번역한 문집 '국역 암은유고'(심미안)을 펴냈다. '암은(巖隱)'은 정씨 할아버지 정난수씨의 호이다. 210쪽이 넘는 분량으로 한국고전번역원 감수위원인 김재희씨의 번역 도움을 받았다.

정씨가 문집을 내기로 결심한 것은 부친이 세상을 떠난 4년 전의 일이다. 상을 치른 뒤 정씨는 집안을 정리하던 중 할아버지의 시집들을 발견했다.

영광군 불갑면 응봉리 봉암마을에서 훈장을 지냈던 할아버지는 정씨의 어릴 적 기억으로 "어렵고 무서운 분"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말로만 들었던 할아버지의 문학적 성취를 후손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면서 출판 작업에 들어갔다. 갈수록 젊은 세대가 한문을 멀리하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마침 43년 6개월 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한 터라 출판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책은 암은 선생이 69세 때 쓴 47편의 시를 엮은 만집 '설니홍조'와 시축 등으로 구성돼있다. '눈 위에 기러기 발자국이 눈이 녹으면 없어진다'는 내용을 담아 인생의 자취가 흔적이 없음을 노래했다. 봉암마을에 암은의 기적비를 세우면서 주변인들이 쓴 글도 실려있다.

정씨는 "후대에 할아버지에 대해 설명할 만한 '교재'가 생긴 것 같아 뿌듯하다"며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하면서도 250편이 넘는 시를 쓴 할아버지의 열정과 노력을 자손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번 출판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생 2막을 설계했다. 그는 동구 동명동의 백천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있다. 그것으로도 배움이 모자라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공부하고 있다. 그는 "한문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깊이 있는 학문"이라며 "공부를 계속해서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한시를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아웃도어 매니저 모임 형통회, 성빈여사 상품 후원

광주지역 아웃도어 매니저 모임인 형통회(회장 김근형)는 20일 추석명절을 맞아 광주 성빈여사를 방문해 문화상품권과 셔츠와 아동복, 가방 등 각자 브랜드 상품을 후원했다. 〈사진〉

형통회는 광주신세계 밀레 김근형, 디스커버리 이성구, 롯데 디스커버리 이휴성, 롯데 트렉스타 백효준 매너저, 동광주 컬럼비아 이정경 대표, 무등산 컬럼비아 이도순 대표, 월드컵점 컬럼비아 장동하 매니저, 신일제약 김형욱 사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매년 4차례 이상 지역 아동들을 위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김근형 회장은 "지역 백화점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웃도어 업계 종사자들도 이웃을 돕는 삶을 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제 다들 자리를 잡아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복합메디컬센터 재도약 다짐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이 개원 108주년을 맞아 미래 의료를 선도할 연구력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복합메디컬센터로 재도약 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

전남대병원은 20일 병원 6동 백년홀에서 개원 108주년 및 전남대어린이병원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삼용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동문 그리고 내외 귀빈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삼용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세기의 세월을 거치면서 국립대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면서 "이제는 국내 의료발전은 물론 미래 의료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원동력인 의료연구를 강화해 새로운 인술 100년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성숙(광주화정신협 이사장·전 시의원)씨 아들 문세종군, 이대연·강대례씨 딸 루리양=29일(토) 오후 12시 40분 광주시 서구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홀.

▲육계옥·이미진(미건설(주) 대표이사)씨 아들 지훈군, 김용현·박동례씨 딸 보라양=30일(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위더스웨딩홀(옛 경복궁) 5층 엘린홀.

종친회

▲경주 배씨 달성판서공파 종친회 '순의제 637주기 사근산성 추모 추양 대제일'=10월 8일(월) 오전 10시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53-1번지 연화사 010-2345-6546.

동창회

▲장흥 용산초등학교 51회=10월20~21일 장흥군 용산면 더꿈 유기농가족체험장(옛 용산남교), 010-2363-0124.

부음

▲최영선씨 별세, 권종(보건의료노조 전 수석부위원장)·권일(광주일보 정치부 부장)·권칠(기상청 정보통신과 사무관)·숙연(소호 메이크업 대표) 부친상, 김영길(삼진 GF품질관리팀 팀장)씨 빙부상, 발인 21일(금) 오전,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20-5049.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신관 3층 특302호 故김남불 님(남/73세)
子 : 김형주 未亡人 : 임희자
女/壻 : 김순임/김정운, 순미
◇입관 : 9/21일 10:00 ◇발인 : 9/22일 08:0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72

본관 2층 특7호 故정봉해 님(여/88세)
子/子婦 : 이종배/이경숙, 종열/나정연, 종석/최미자
女/壻 : 이인선/승룡
◇입관 : 9/21일 14:00 ◇발인 : 9/22일 08:00
◇장지 : 영광묘량면선영[화] ◇연락처 : 250-4407

본관 3층 특12호 故유순례 님(여/88세)
子/子婦 : 김세원/김 미, 계원, 서원/정혜선
女 : 김영숙, 수남
◇입관 : 9/20일 10:00 ◇발인 : 9/21일 08:10
◇장지 : 광양진월면선영[화] ◇연락처 : 250-4412

본관 지하1층 3호 故정충주 님(남/73세)
子/子婦 : 정승권/티탄, 수권
女/壻 : 정명희/박국현, 기숙/박두일
◇입관 : 9/20일 14:00 ◇발인 : 9/21일 11:0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03

신관 4층 특402호 김회수 님(남/57세)
子 : 김용원
女/壻 : 김수민/김상우, 지윤
◇입관 : 9/20일 13:00 ◇발인 : 9/21일 08:00
◇장지 : 함평학교면선영[화] ◇연락처 : 250-4474

신관 2층 VIP예궁 故김포녀 님(여/85세)
子/子婦 : 임권수/홍경숙, 갑수/고의정, 덕수/황애숙, 완수
女/壻 : 임미현/한규선
◇입관 : 9/20일 11:00 ◇발인 : 9/21일 08:30
◇장지 : 화순이양면선영[매] ◇연락처 : 250-4470

본관 2층 특9호 故김봉수 님(남/78세)
子/子婦 : 김선오/조경희, 선길/최정란 未亡人:김삼질
女/壻 : 김명희/유호정, 명순/이경환, 명임/김진수
◇입관 : 9/20일 15:00 ◇발인 : 9/21일 08:00
◇장지 : 해남화원면선영[화] ◇연락처 : 250-4409

본관 지하1층 5호 故박필언 님(여/84세)
子/子婦 : 김충곤/홍안단, 효곤, 장완/최미숙
女/壻 : 김월녀, 금녀/정윤대, 복녀/스태판
◇입관 : 9/20일 10:00 ◇발인 : 9/21일 07:0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05

신관 3층 특301호 故김금녀 님(여/77세)
女/壻 : 유지영/안광종 ◇입관 : 9/20일 13:00 ◇발인 : 9/21일 07:00
孫 : 유재승, 재경, 안현지 ◇장지 : 담양무정면선영[화] ◇연락처 : 250-4471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회장 김 영 관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1일(음 8월 12일 丙辰)

子 36년생 직접 처리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48년생 지나치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60년생 얻게 될 것이니 놓치지 말라. 72년생 발전된 국면으로 진입하는 쾌거가 있다. 84년생 거창한 명분에 비해서 실제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1, 80

丑 37년생 내버려 둬도 상관없다. 49년생 유익한 이와의 만남이 있을 수다. 61년생 상호 교체한다면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73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85년생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떠 있는 형상이로다. 행운의 숫자 : 92, 70

寅 38년생 길사를 도모할 수 있겠다. 50년생 현태대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니라. 62년생 간발의 차이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74년생 상호 증진을 위한 아픔일 것이니 기꺼이 감수하라. 86년생 잠깐의 요동이 있을 수나 곧 안정될 것이니 염려 말라. 행운의 숫자 : 26, 05

卯 39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1년생 노력이 수반 되어야만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다. 63년생 지인의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75년생 활용한다면 판이한 결과를 낳는다. 87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행운의 숫자 : 00, 54

辰 40년생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로 부심하게 된다. 52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느니라. 64년생 전체와의 조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76년생 문제 될 것은 없으니 계획대로 진행하라. 88년생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니 각오하라. 행운의 숫자 : 13, 32

巳 41년생 의지를 관철시키기에 충분하다. 53년생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대국이다. 65년생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국면에 이른다. 77년생 망각한다면 실수로 이어진다. 89년생 무의식중에 행한 언행에 의해서 의외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행운의 숫자 : 28, 59

午 42년생 과거에 대한 집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54년생 문제 속에 해답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66년생 의미 있는 일이 전개 될 것이다. 78년생 서둘러서 좋을 일은 없느니라. 90년생 정성으로써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성사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행운의 숫자 : 37, 24

未 43년생 수고로운 일이 드러나지만 쉽게 극복 될 수 있는 처지이다. 55년생 거추장스럽다면 버려도 된다. 67년생 적절한 언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79년생 빨리 봉합하고 볼 일이다. 91년생 상호간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7, 76

申 44년생 절실히 필요하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생산적이다. 56년생 회복할 수 있다. 68년생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80년생 형식적인 것은 모두 차지하고 실리위주로 처리하고 바라봄이 옳다. 92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넘어가도 된다. 행운의 숫자 : 87, 31

酉 45년생 판세의 변화를 가져 올만한 일이 생긴다. 57년생 서두르지 않는다면 낭패를 본다. 69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처해야겠다. 81년생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는 법이다. 93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07, 50

戌 34년생 몹시 애를 먹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겠다. 46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년생 알뜰함 속에서 화목함이 싹트는 법이다. 70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82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도다. 행운의 숫자 : 34, 66

亥 35년생 자신의 주관대로 임해도 된다. 47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59년생 계획했던 대로 진행 되리라. 71년생 다시 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지도 모르는 날이다. 83년생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8, 2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